

### 비강 구혈 후두 및 기관에 발생한 디프테리아 1례

부산성분도병원

이계실 · 차인숙 · 김정중

디프테리아는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었으나 요즈음은 예방접종의 실시로 발생이 많이 감소된 반면에 나이를 먹은 어른이 늦게 걸리는 경향이 있다.

저자들은 최근에 16세 여자 환자에서 비강 구혈 후두 및 기관에 발생한 디프테리아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부식성 식도염에서의 조기 식도경술의 의의

연세대 학교 원주의 학부

임병석 · 봉정표 · 박순일 · 문태용 · 윤강목

화학 독극물의 오염 및 음독으로 인한 부식성 식도염의 처치 및 치료법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심한 부분이며 아직도 뚜렷한 치료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1960년대 부터 소위 “적극적 진단 방법(VDA)”으로 집약되는 조기 식도경술 혹은 응급 식도경술의 개념이 이 질환의 진단에 도입되면서 여러 치료방법의 선택에 선행하여 식도 부식의 유무 확인 및 부식 정도를 분류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Kaplan (1961), Hanckel (1951), Davis (1956), Alford (1959), Daly (1968), Welsh (1978)]

조기 식도경술의 장점은 ① 병변부위 및 화상 정도의 정확한 진단. ② 치료방법의 선택. ③ 입원기간 단축. ④ 병의 예후판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질환에 관한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로 조기 식도경술을 시행한 결과 약 25% ~ 45%에서만 식도병변이 존재하였을 뿐 많은 경우에서 병변이 없거나 경미한 예가 많았다는 보고들이 있어 [Waggonor (1958), Kaplan (1961), Yarrington (1964), Hawkins (1980)] 이 질환의 치료방법의 선택은 조기 식도경술로 병변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오류를 범

하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라 생각된다. 특히 식도염착의 예방을 위한 Steroid 투여는 아직도 학자간에 찬반의 논란이 많고, 더욱 다량의 출혈 및 천공의 위험성의 증대가 예견되는 Steroid 치료는 적용예가 아닌 경우에도 투여함으로써 불필요한 합병증의 위험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들은 1980년 1월 부터 1982년 12월 까지 원주기독병원에 입원 하였던 부식성 식도염 환자 41명을 식도경 검사를 실시하여 식도·병변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대한 각각의 치료를 시도 함으로서 몇가지 앞으로의 치료지침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성별 분포는 남자 16 (39%), 여자 25 (61%) 이었으며 1 : 1.5의 빈도를 보였다.

2) 연령 분포는 20대와 30대에서 남녀 모두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부식제의 종류는 빙초산이 26명 (63.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염산 7 (17.1%) Lye 3 (0.7%)의 순이었다.

4) 음독후 12시간내에 식도경술을 받은 환자가 3명 (0.7%) 12-24시간에 받은 환자가 17명 (41.5%), 24 - 48시간에 받은 환자가 11명 (26.8%)으로 48시간내에 시행받은 환자가 전체의 75.6%를 차지하였다.

5) 식도경 검사상 나타난 식도화상은 Grade I 11명 (26.8%) Grade II 18 (43.9%) Grade III 7명 (17.1%) 이었으며 Grade II 인 경우가 18명 (43.9%)로 가장 많았으며 Grade I 11명 (26.8%), Grade III 7명 (17.1%) Normal 5명 (12.2%) 순이었다.

6) 조기 식도경 검사에서 41명중 oral cavity burn이 없었던 경우가 15명 (36.1%) 이었으며, oral cavity burn이 있었던 26명중 5명 (19.2%)에서 Esophageal burn이 없었다. 특히 Esophageal burn의 Grade II, III 25명중 9명 (29.6%)에서 oral cavity burn이 없었다.

7) 식도 부식중 환자의 치료 원칙으로 Grade I, II, III에서 항생제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며 Grade I에선 oral feeding을 시켰고 Steroid는 경우에 따라 투여하였으며 Grade III에선 원칙적으로 사용치 않았다. 식도조영술은 Grade I II III에서 3주후에 모두 시행하였다.

8) 3주후 식도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Steroid를 투여한 27명중 5명 (18.5%)에서 식도염이 계속 존재하는 음영을 나타냈으며 Steroid를 투여하지 않은 9명은 1명 (11.1%) 만 식도염의 음영이 보였다.

9) 3개월후 추적검사는 Steroid 투여군에서 4명

influenzae. This is so because early recognition and careful airway management is always desired.

Numerous reports in the literature reveals that a majority of cases occurs mainly in young children under six years of age, however, recent reports of acute epiglottitis in adult is increasing.

We present a series of acute epiglottitis in adult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We also discuss the differences between acute epiglottitis in adult and in children in terms of clinical course, causative organism, management and the results of treatment.

— 22 —

#### A Case of Diphtheria Involving Nasal Cavity, Fauces and Laryngotrachea

Kye Sil Lee, M.D., In Sook Cha, M.D.,  
Jung Joong Kim, M.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St.  
Benedict Hospital, Busan, Korea*

Diphtheria is now very rare condition because of generalized preventive immunization.

Authors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diphtheria involving nasal cavity, fauces and laryngotrachea in a 16-year-old female with 4 days history of throat pain, malaise and moderate pyrexia with chill.

This is the report of the case with review of the literature.

— 23 —

#### Significance of Early Esophagoscopy in Corrosive Esophagitis

Byoung Seok Lim, M.D., Jeong Pyo Bong, M.D.,  
Soon Il Park, M.D., Tae Yong Moon, M.D.,  
Kang Mook Yoon, M.D.  
*Dept. of Otorhinolaryngology Wonju Medical  
College, Yonsei Univ.*

Corrosive injuries of the esophagus by ac-

cident or suicidal attempt, though decreasing in number, still represent an important problem of our national pathology.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facing any physician is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austic ingest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extent of esophageal burns, to prevent the potential complication, to increase the therapeutic effect, the use of esophagoscopy is an essential step, and it has lessened an unnecessary admission and treatment. The authors have found the value of early esophagoscopy in selected 41 corrosive esophagitis patient who were admitted to Dept. of ENT, Wonju medical college, Yonsei university between 1980, 1-1982. 12

— 24 —

#### A Case of Repeated Esophageal Foreign Bodies Due to Esophageal Stricture

Young Sun Kim, M.D., Ju Won Kang, M.D.,  
Sung Hee Hur, M.D., Dae Choon Bang,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Sudden esophageal obstruction by a bolus of food is not a rare phenomenon.

The individual is frequently elderly and has ill-fitting dentures through others may initiate this by bolting food. In adult patient there is a frequent history of alcoholic intake, the consumption of meat with improper chewing.

A common anatomic abnormality leading to meat impaction of the esophagus is hiatal hernia, which is often associated with a ring or stricture.

Recently authors experienced a case of repeated esophageal foreign bodies in 10 days in the patient who had esophageal stricture.